

# 일하고 또 일하고... 제주 여자의 삶 나아졌나

### 도설문대여성센터 기획전 고광민 기증 사진 60여 점 '탄생'에서 '하직'까지 생애 노동의 현장 살아온 여성



1997년 5월 구좌읍 월정리에서 한 할머니가 허리에 구둑을 차고 우미(우뚱가사리)를 골라내고 있다.

제주에 전해지는 속담은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셋질 드는 날 아침이 여자는 놀이 집이 가지 말라.(입춘 날 아침에 여자는 남의 집에 가지 말라)"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제주여성들은 조용히 집에 있어야 했다. 특정한 날에 남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없었지만, 여성은 달랐다.

그럼에도 제주여성들은 일하고 또 일했다. 화산섬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헤쳐가려면 이즈음처럼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맡아온 그들을 두고 흔히 '강인한 제주여성'이라고 말해왔지만 그것이 때로 제주여성들을 억압해왔는지 모른다. 제주여성은 슈퍼우

면이 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23일부터 펼쳐고 있는 특별기획전 '제주 여자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쏟아부은 제주여성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알

맞은 대우를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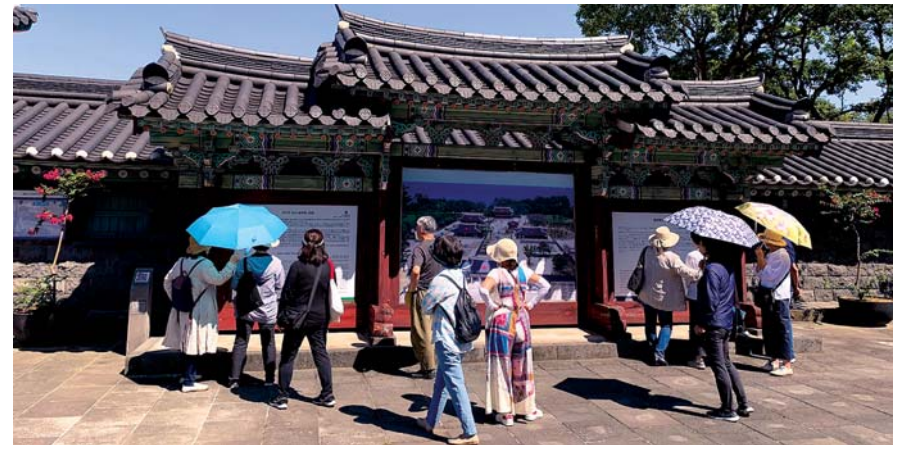
이 전시는 서민 생활사를 다루는 고광민 연구자의 기증 사진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그가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기증한 사진 자료 600여 점 중에서 60여 점을 골라내고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소장한 생활 도구

를 더해 제주여성의 '탄생'에서 '하직'까지 한 편의 이야기를 꾸렸다. 거기엔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태어나서 소녀가 되고, 어른이 되고, 할망이 되어 끝내 이 세상과 이별했던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세대 제주여성의 삶이 있다.

191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사진 속 제주여성들 중에 유희를 즐기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늘(그늘대)에 아기를 재운 뒤 보리밭에 검질(검)을 매고, 미역 따러 바다로 향하고, 허리 숙여 양태를 걷는다. 흑백에서 컬러 사진으로 세월이 바뀌어도 제주여성들은 앞바다로 나가 해산물을 캐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전시에 붙여진 제목은 제주어로 된 '실론 일랑 기린 듯 허라'. 주 최 측은 이를 '하기 싫은 일을 그리운 듯' 하는 마음이라고 풀이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성들이 힘겹게 들어야 했던 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려는 태도일 것이다. 전시는 3월 7일까지 계속된다.

전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문화포럼 회원들이 제주목 관아 입구에서 안내판을 보고 있다.

## 도심 유적 관광안내판 이래서야...

### 제주문화포럼 안내판 탐구 시민모니터와 외국어 자문 '번역용 원본 따로 나와야'

"제주목 관아 안내판은 고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안심하고 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주목과 제주목사에 대한 설명까지 다 다르게 표현해 놔습니다. (중략) 맞춤법, 시제, 주어, 동사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번역을 하고 감수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원본과 번역용 원본이 따로 나와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제주목 관아를 둘러본 전문가가 이같이 말했다. 영어 자문을 맡은 그는 "제주목 관아는 제주의 '간판'이라며 '빨리 고치고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문화포럼이 '시민이 새로 쓰는 관광안내판'이란 제목으로 제주도심 대표 유적인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삼성혈을 둘러본 결과를 최근 보고서로 묶어냈다. 올바른 정보와 내용, 반듯한 언어로 품격을 갖춘 안내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추진된 사업으로 제주문화포럼 회원들로 구성된 시민모니터와 영어, 중국어, 일어 전문가가 새롭게 고쳐

쓴 내용을 담았다.

삼성혈 시민모니터에서는 매크립지 않은 한국어 문장, 동일한 대상 안내판에 대한 명칭과 표현의 일관성, 제주 안내판 설치 등을 주문했다. 전문가가 살핀 영어 안내판은 삼성혈의 '혈'이 일치되지 않아 cave, hole로 각각 쓰거나 한국어 설명이 불분명하다 보니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의미가 더 불분명해진 사례가 나타났다. 중국어는 안내판의 한자가 한국어 한자어, 중국어로 통일성이 없었다. 일어 안내판에서는 한자의 번체, 중국 간자체, 일본 상용한자가 섞여 있고 구어와 문어가 혼용되면서 문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대목이 발견됐다.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에서는 영어 안내판마다 한글에 대한 오류나 이해 불가의 문장이 난무했다. 중국어 안내판은 한국어 원문을 그대로 축약식으로 직역하고 어순만 중국어식으로 바꾼 경우가 많았다. 일본어는 문장구성의 기본인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의 표기에서 슬픈 오류가 드러났다.

제주문화포럼 측은 "이번 결과를 통해 안내판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최종적으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제주도내 전 지역의 안내판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의 722-6914. 전신희기자

## 서귀포예술단 선물 같은 치유의 음악

### 신년음악회 '힐링 콘서트' 합창단·관악단 연주 맡아 내달 4일 동영상 채널 공개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이 신년음악회로 새해의 희망찬 기운을 부른다. 이달 28일 오후 4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힐링 콘서트'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음악으로 치유의 힘을 선물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에게 귀에 익은 곡으로 2021년을 힘차

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귀포예술단은 공연 장면을 녹화한 후 2월 4일부터 서귀포예술단과 서귀포시청 유튜브로 실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임지휘자 최상운이 지휘하는 서귀포합창단은 '아 카펠라 서곡'으로 막을 연 뒤 '제주 이야기와 타령', '희망찬 출발' 두 개의 주제로 노래를 이어간다. 민요 '군밤타령', 바이올린 연주가 더해진 '삼다도 소식', 제주해녀의 삶을 담은 '비바리', '문을 열어라', 플루트와 타악기 선율이 어우러지는 '출발', '한국을 빛낸 100인의



이동호 최상운 오능희 성민우

위인들', 교성곡 '나의 조국 대한민국' 중 '한라산아'를 선곡했다.

상임지휘자가 이동호가 지휘봉을 잡는 서귀포관악단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는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을 시작으로 역동적인 금빛 선율을 전할 '태양의 찬가-대지의 울림', 알토색소폰과 소프라노

색소폰이 교차 연주되는 '삭스팩'(협연 성민우 단원), 제주국제관악제와 인연이 깊은 알프레드 리드의 '아르메니안 춤'을 준비했다. 제주 소프라노 오능희의 협연으로 가곡 '내 맘의 강물', 오페라 '토스카' 중 아리아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도 선사한다. 전신희기자

## '빛의 병커' 반 고흐 이어 모네 온다

### 4월 말에 '지중해의 화가' 르누아르·샤갈 포함 전시

빛의 병커는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 '반 고흐'전 후속으로 모네, 르누아

르, 샤갈 등 '지중해의 화가'전을 진행한다.

'지중해의 화가'전은 4월 말부터 공개할 예정으로 50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지키며 빛의 변화를 탐색

했던 인상과 화가의 대표 주자 모네를 중심으로 대담한 색채와 명암의 교차가 매력적인 르누아르, 신선하고 강렬한 느낌의 샤갈 작품까지 펼쳐놓는다.

이 기간에는 자유로운 드로잉이 특징인 파울 클레 작품도 10분간 상영한다. 파울 클레는 선명하고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독일의 화가로 국내에서 미디어아트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유희시설을 활용해 들어선 빛의 병커는 매해 주제가 바뀌며 상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매 전시마다 40여 분간 메인 프로그램과 10분 내외의 기획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신희기자

## 겨울방학 책놀이 꾸러미 한림 한수풀도서관 배부

한수풀도서관(관장 이창석)은 코로나19 속에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흥미롭게 독서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책놀이 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 책놀이 꾸러미는 '플라스틱 섬'(이명애 저)과 '이유가 있어서 멀쩡했습니다'(마루야마 다카시 저)등

환경 도서 2권, 책을 읽으며 깊고 넓게 생각하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생각활동지와 독서퀴즈 문제지, 책 내용과 연계해 보드게임으로 우리나라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책놀이감으로 구성됐다.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관내 초등학교 학생 200가구를 모집한다. 후속 활동을 공유한 우수 참가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전신희기자

**승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서기관)

**박순태**  
(신춘초 29회)

**당선(취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제12대 회장**

**백상훈**  
(신춘초 30회)

**승진**

**제주아트센터 소장**  
(사무관)

**김영기**  
(신춘초 32회)

승진 및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춘초등학교총동문회**

**신춘향우회**

**회장 김양옥 외**

**회장 강석훈 외**

**회원일동**

**회원일동**